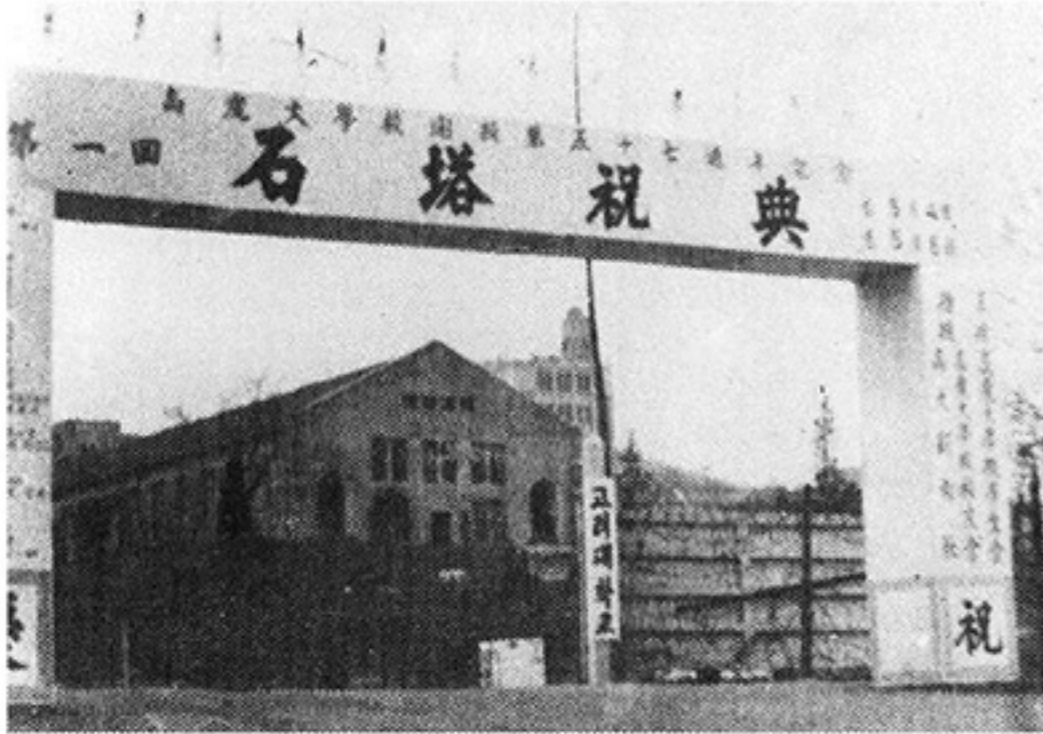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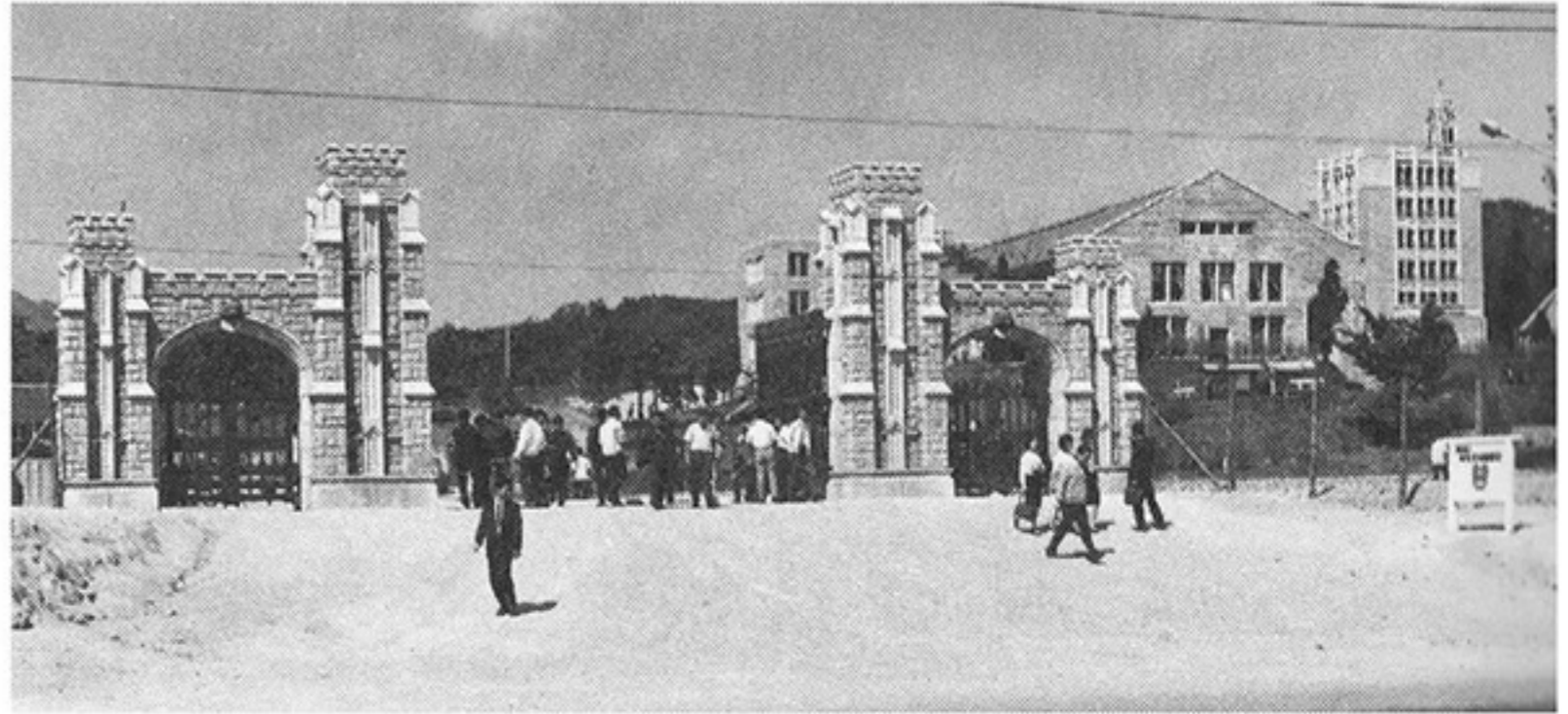


# ‘본관-인촌동상-대운동장-정문’ 중심축으로 학교 공간 배치



1962년 촬영된 학구 주출입구의 위치(왼쪽). 1965년 교우회는 모교 개교 60주년 기념으로 학교 남서쪽의 당시 주출입구에 교문을 헌정했다. 버팀벽과 여장 등 고딕식탑 모티브를 미려하게 살린 이 교문은 현재 세종캠퍼스 정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 고려대학교의 건축물과 역사 10

### 캠퍼스 마스터플랜의 도입과 정문 건립

1960년대 중반 고려대학교 건축사의 무대에서 눈여겨 볼 점은, 지난 호의 서술처럼, 그 창작의 주축이 박동진에서 이정덕으로 세대교체 됐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이정덕은 박동진이 새로이 물고 온 모더니즘의 바람을 일신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의 등장의 또 다른 중요성은 고려대학교 캠퍼스에 본격적인 마스터플랜이 도입된 데서 찾을 수 있다.

물론 1936년도의 『보성전문 일람』에 삽입된 ‘약도’도 당시 캠퍼스의 개략과 전망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본보 2014년 11월호, 연재물 6회분 참조). 이 도면에는 본관을 중심에 두고 동편으로(당시 시공 중인) 도서관이 작도됐고, 서관 자리는 ‘강당부지’로 표기돼있다. 그리고 본관 앞에 곧 실현될 너른 ‘경기장’(대운동장, 1937~38)이 예기됐을 뿐만 아니라, 캠퍼스 남단에는 세 개소의 작은 구기장(‘정구장’, ‘농구장’, ‘배구장’)도 연결해 설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전체의 장기적 조망과 적극적 계획의 의지를 1930년대의 ‘약도’에서 기대하기는 시기상조다. 도서관의 완공이나 강당의 계획만으로도 당시에는 아직 물리적 환경에 큰 아쉬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1960년대 후반이라면 상황이 크게 다르다. 본연재물이 지금까지 보였듯, 해방 후 보성전문은 종합대학인 고려대학교로 승격되고 구성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건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섰으며, 예기능 역시 개발 일로였고, 건축양식 역시 혼재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학교의 지속적 팽창은 새로운 건물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이 모두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직해 캠퍼스에 질서를 부여할지가 당연한 관심사로 대두됐을 텐데, 본교 건축과에 첫 교수로 부임한 ‘젊은’ 이정덕에게 자연스레 그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 건축과 첫 교수 이정덕

##### 캠퍼스 마스터플랜 입안

이정덕이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입안한 시점은 자신이 설계하게 된 학생회관(1970~71)의 위치를 정하던 1960년대 말이었다. 학생회관의 입지는 후술할 정문의 위치와 직결됐기에 결국 학교 전체의 계획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하겠다. 이 마스터플랜은 이후의 건축사업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는데, 그가 『고대신문』에 게재한 「발전 속의 조화를 갖춘 캠퍼스로」(1991. 3. 11)라는 글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자.

첫째, 본관-인촌동상-대운동

실내체육관(동쪽)을 둔 과외활동 시설 지역으로 설정하며, 뒤로는 차례로 본관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및 행정시설 지역, 도서관과 박물관을 둔 연구시설 지역, 기숙사와 교수사택의 주거지역으로 한다. 그리고 대운동장 이외에도 학생회관(서쪽)과 상과대(경영관)(동쪽) 앞에 광장을 둔다. 셋째, 모든 건물은 직각 또는 평행으로 배치한다. 넷째, 건물 높이는 걸어갈 수 있는 범위인 5~6층 한도에서 정하며, 학생 다수가 10분 내에 다른 강의실로 이동 가능토록 배려한다. 다섯째, 건물 외장 재료는 몇 가지로 제한하며, 동질성을



이정덕 교수가 1991년 3월 11일자 고대신문에 게재한 학교 마스터플랜 조닝.

장-정문이 중심축을 이뤄야 한다. 둘째, 캠퍼스가 대로에 가로 방향으로 접해있으므로 소음과 동선을 감안한 ‘대상용지계획(帶狀用地計劃, Belt Type Zoning)’이 필요하다. 즉, 도로에 접한 쪽에는 학생회관(서쪽)과

유지한다. 여섯째, 석조전은 본관을 중심으로 가까운 건물에 한정하며, 먼 곳의 건물은 현대적 양식으로 건설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칙은 학교 관리 책임자가 바뀌어도 준수돼야 한다.

이 마스터플랜의 각 항목은 하

나하나 꼼꼼히 살필 만하지만, 중심축의 강조가 고전적이라는 점과 더불어 소위 ‘대상용지계획’의 용도에 따른 건물 ‘조닝(zoning)’이 서구 근대주의자들의 계획론을 연상시킨다는 점 정도를 언급해두자. 그리고 이러한 원칙이 그저 개념적 수준의 것이었다기보다 곧 착수해야 할 정문의 이전 문제, 그리고(다음 호에 다룰) 학생회관 및 상과대 프로젝트와 직접 결부돼 있었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1965년 교우회가 남서쪽 교문 헌정 1971년 현재 정문 건립

이 가운데 정문이 현재의 중심축 상에 놓이기까지의 과정은 꽤 흥미롭다. 고려대학교는 안암캠퍼스에 터를 잡은 지 30여 년 동안 그 위상에 걸맞은 교문을 갖지 못했다. 당시 교문이 지금의 위치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1930년대의 ‘약도’에 표기된 ‘입구’ 및 1940년대의 사진을 보라) 사용빈도가 적고 외관도 매우 초라했다. 사실상 정문으로 역할을 한 것은 신설동 쪽에서의 접근이 용이한 캠퍼스 남서측, 즉 현재의 대강당 아래쪽과 학생회관 사이에 위치한 출입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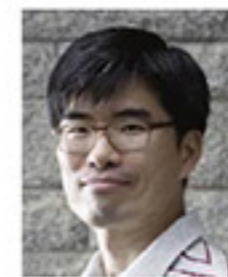
그러던 중 교우회는 1965년의 모교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교문을 헌정하기로 결의한다. 그리고 학교의 상징성, 화강암 외장의 문

주 및 철제문, 차량 통행용 중앙 출입구와 양쪽의 보행자용 출입구 등과 같은 요목을 제시하며 그 해 3월 현상공모를 진행했는데, 연합건축 김만성의 안이 당선돼 그 설계대로 같은 해 10월 교문을 완공했다. 이 디자인은 설계 요목을 따라 한 쌍의 아치 구조물을 통해 중앙의 출입구와 양쪽의 보행자용 문을 형상화하는 한편, 버팀벽과 여장 등 고려대학교의 고딕식탑 모티브를 미려하게 표현해 낸 것이다. 또한 양쪽 아치 머리에 호랑이 두상을 조각함으로써 학교의 상징성도 배가시켰다.

신축된 교문은 그때까지의 주 출입구 위치에 자리 잡았다. 문을 들어서면 우측으로 대강당과 서관을 대면하게 됨을 당시의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봤듯 이정덕의 마스터플랜은 그 위치의 조정을 요청한다. 그리고 그 크기 역시 정문으로서의 품격에 맞게 더 웅장해야 했다. 결국 1971년 정문의 위치가 현재의 중심축 상으로 옮겨지는 가운데, 김만성의 디자인은 이정덕에 의해 규모가 확대된다.



1971년 이정덕 교수는 본관-인촌동상-대운동장으로 연결되는 캠퍼스 중심축에 현재의 정문을 세웠다.



김현섭(건축공92) 모교 건축학과 교수